

The Meaning of Death for Korean in View of Novel and End Stage Cancer Patient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전 혜 원

Abstract

The Meaning of Death for Korean in View of Novel and End Stage Cancer Patient

Jeon Hye 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Boon Han, R.N., Ph.D.*

Every one experiences death one day, however no one can know exactly what it is because people can not experience death until it comes,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judge correctly on the phenomenon of the death. On the whole, man experiences indirect death through the mass communications such as TV drama, fiction, magazine etc because those methods can easily access by every one. In addition to this, people usually acquire the negative awareness of death through the dramatic change of story like dying of cancer for dramatic effect by giving scare and fear to the can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spiritual care that enables the facing death patients to accept death as a part of life and divert hope from scare about after death by comparing and analyzing of two aspects of death meaning i.e, Korean fiction and the end stage cancer patients. Additionally, for medical staff to understand the facing death cancer patients by making to aware patients correctly and provide the better quality of care.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28, 2002 to February, 28 2003.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direct data obtained from observation, interviews, note and diary of end stage of cancer patients and written materials acquired from Korean contemporary fict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 end stage cancer patients including 2 lung cancer patients, 1 liver cancer patient and 1 esophagus cancer patient.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types; Huberman & Miles methodology was used for fiction to find and categorize subject, and Colaizzi, one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end stage cancer patients to find the major meaning, subject and categorization.

Every one experiences death one day, however no one can know exactly what it is because people can not experience death until it comes,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judge correctly on the phenomenon of the death. On the whole, man experiences indirect death through the mass communi-

cations such as TV drama, fiction, magazine etc because those methods can easily access by every one. In addition to this, people usually acquire the negative awareness of death through the dramatic change of story like dying of cancer for dramatic effect by giving scare and fear to the can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spiritual care that enables the facing death patients to accept death as a part of life and divert hope from scare about after death by comparing and analyzing of two aspects of death meaning i.e, Korean fiction and the end stage cancer patients. Additionally, for medical staff to understand the facing death cancer patients by making to aware patients correctly and provide the better quality of care.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28, 2002 to February, 28 2003.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direct data obtained from observation, interviews, note and diary of end stage of cancer patients and written materials acquired from Korean contemporary fict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 end stage cancer patients including 2 lung cancer patients, 1 liver cancer patient and 1 esophagus cancer patient.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types; Huberman & Miles methodology was used for fiction to find and categorize subject, and Colaizzi, one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end stage cancer patients to find the major meaning, subject and categorization.

Key Words: Meaning of death, Korean, Novel, End stage, Cancer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현상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해 죽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극적 효과를 위하여 암으로 인한 죽음을 스토리의 극단적인 전환에 자주 이용한다. 이런 것이 대중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줌으로써 죽음의 부정적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말기 암환자 관찰을 통해 본 죽음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임종 환자가 죽음을 삶에 있어서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영적 간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의료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함으로서 임종환자를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본 연구의 자료는 말기 암환자의 참여 관찰과 면담, 수기, 일기를 통해 얻은 자료와 한국 근현대 소설의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말기 암환자 4명으로 폐암 2명, 간암 1명, 식도암 1명이었다.

연구 분석 방법으로 소설은 Huberman & Miles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를 찾고 범주화하였으며 말기 암환자는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심의미와 주제를 찾고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과정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부정적 정서 중 삶과 관련된 주제는 삶에 대한 집착, 걱정, 미련, 책임감, 포기, 죽음과 관련된 주제는 충격, 소외감, 두려움, 공포, 거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수용과 관련된 주제는 수용, 운명, 현세관, 준비, 정리로 승화와 관련된 주제는 기독교, 불

교를 통한 종교적 승화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죽음은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로 나타났으며 삶과 관련된 주제는 미안함, 걱정, 미련, 책임감, 절망이었고 죽음과 관련된 주제는 우울, 외로움, 분노, 공포, 두려움이었다. 수용은 종교적 수용으로 하나님과 타협함으로 죽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준비, 정리, 수용, 희망 등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화와 관련된 주제는 기독교를 통한 종교적 승화와 대화와 사고를 통한 자기 성찰로 인한 승화로 후련함, 숙명이었다.

소설과 연구 참여자를 통해 본 죽음은 부정적 정서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종교에 의지하여 승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과 연구 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참여자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로 부정적 정서, 수용, 승화의 과정을 보여주며 수용 중에서 참여자에서만 종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의 죽음은 정형화되고 단계적이며 Kubler-Ross의 심리 상태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참여자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으며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종교를 통한 승화는 소설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통한 승화를 보여주었고 참여자에서는 호스피스 대상자가 많았으므로 거의 기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설이라는 픽션보다 실제 연구 참여자에서 다양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에서 죽음은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소설이 자칫 참여자의 간호중재를 하는데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에 치중된 간호실무가 필요하며 실제의 죽음은 우리가 분석하고 나타내곤 하는 범위보다 심오하므로 많은 상황과 반응들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를 간호하는데 중재 방안으로 영적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